

2년 뒤 롯데가 안치홍 포기하면? 계약금 OK, 다년계약 NO



KBO리그 최초 옵트아웃 계약 '사인'

2년 후 계약포기시 방출 선수 신분과 같아

꾸준한 활약시 4년 최대 56억원 대우

KBO리그 최초로 '옵트아웃' 계약이 체결됐다. 롯데 지이언츠가 지난 6일 안치홍(30)과 2+2년 최대 56억원을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2년 후 구단과 선수가 계약 연장을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다. 2년 후에도 안치홍이 필요하다면 롯데는 +2년 계약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안치홍이 선택한다.

반대로 안치홍이 2년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펼친다면 롯데도 안치홍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롯데와 안치홍, 양 측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는 계약인 셈이다.

메이저리거에서는 흔한 '옵트아웃' 계약이다. 옵트아웃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계약을 해제(OUT)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치홍은 2021년까지 2년 간 최대 26억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14억2000만원과 연봉 2억9000만원씩 총 5억8000만원이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6억원이다.

인센티브 6억원에는 1억원의 바이아웃 금액이 포함돼 있다. 2년 뒤 롯데가 안치홍과 계약 연장을 포기할 경우 '위로금' 성격의 1억원을 지급한다.

만약 롯데와 안치홍이 2년 연장 계약에 합의할 경우 '최대' 3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치홍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56억원(26+31-1)이 된다.

몸값 계산부터가 다소 복잡하다. 그만큼 생소한 계약이다. 2년 후 롯데와 안치홍이 결별할 경우에도 따져볼 부분이 많다.

2021시즌 종료 후 롯데가 안치홍과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면 안치홍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롯데를 제외한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해 새로운 소속팀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안치홍은 새로운 구단으로부터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년계약은 할 수 없다. 방출 선수 신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KBO는 다년계약을 FA 선수에게만 인정한다.

원래 KBO 규정에는 자유계약 선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방출생 신분인 자유계약 선수에게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었다.

정금조 KBO 운영본부장은 "규

정 상으로 자유계약선수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계약선수는 방출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없었다"며 "하지만 다년계약은 불가하다. 1년 계약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치홍이 특이한 경우다. 2년 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뒤 타구단에서 계약금을 포함해 후한 조건을 제시하면 팀을 옮길 수 있다. 1년 계약으로는 롯데의 '+2년 계약'의 조건인 최대 31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어렵겠지만, 인센티브를 제외한 보장금액을 늘린다면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는 일단 2년 최대 26억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든글러브 3회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2루수 안치홍을 영입했다. 2년 뒤에는 롯데와 안치홍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지를 뽑아둘 수 있다. 안치홍으로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친다면 4년 최대 56억원이라는 섭섭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된다.

뉴스1

돌아온 손흥민 "힘들었지만, 더 배우고 발전하겠다"

"돌아오게 돼 기뻐...해리 케인 부상 공백 잘 메워야"

지난달 23일 첼시전 다이렉트 레드카드 세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던 손흥민이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6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나간 일이다. (레드카드에 대해) 더는 말하거나 생각

하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미들즈브러전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팀의 주포 해리 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자리를 이탈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손흥민은 이에 대

해 "토티넘엔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골장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나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케인은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다. 그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발전해서 경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1년짜리 계약 제시였다" 김재환 ML 진출 무산 이유

메이저리거 진출을 노리던 김재환은 2020년에도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재환의 매니지먼트사 스포티즌은 지난 6일 "메이저리거 4개 구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메이저리거 진출이 최종 무산됐음을 알렸다.

메이저리거 사정에 밝은 한 관

계자는 "마이에미가 아닌 다른 구단에서 김재환에게 1년 200만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했다"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김재환과 두산의 약속 때문에 계약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200만달러(약 23억4000만원)는 김재환의 2019년 연봉 7억3000만원의 3배가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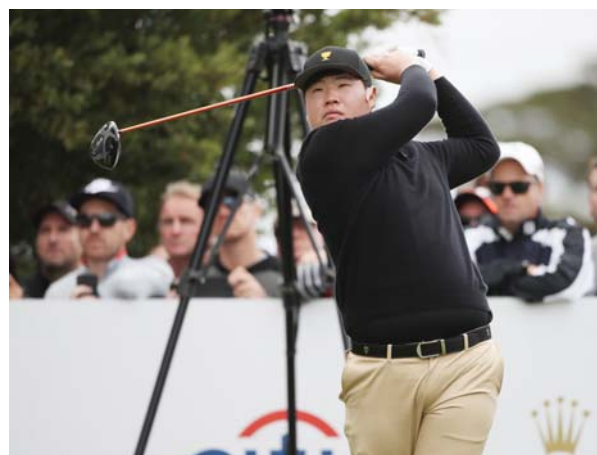
계약기간이었다. 김재환과 두산은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을 메이저리거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약속했다.

김재환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팀의 4번타자를 풀어주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두산의 기준을 넘지는 못했다.

뉴스1

'2020년 첫 출전' 임성재, PGA 소니 오픈 파워랭킹 7위

2018-19시즌 35개 대회 톱10에 7번...우승無 아쉬워



대회에서 톱10에 7번 이름을 올리는 활약을 바탕으로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우승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임성재는 2019-20시즌

임성재(22·CJ대한통운)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 오픈(총상금 660만달러)을 통해 2020년을 시작한다.

임성재는 9일(현지시간)부터 나홀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 70·7044야드)에서 열리는 소니 오픈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2018-19시즌 35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 조조챔피언십 공동 3위 등을 마크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또한 프레지던츠컵에 단장 추천으로 합류해 선전했다.

PGA투어는 임성재를 이번 대회 파워랭킹 7위에 올려 놓으며 주목했다.

PGA투어는 "프레지던츠컵 데뷔 무대에서 모든 대회에 출전해 3승1무1패를 기록했다. 또한 메이저대회를 제외하고 17개 대회 연속 컷통과에 성공했다"며 "지난해 소니 오픈에서도 공동 16위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는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꼽힌다. 토마스는 지난해 10월 더 CJ컵과 6일 막을 내린 센트리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정상에 서며 벌써 2승을 기록 중이다. 왕중왕전의 성격을 가진 지난해 대회에서는 3차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하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PGA투어는 토마스를 파워랭킹 1위에 올려 놓았다. PGA투어는 "최근 6번의 PGA투어 대회에서 3승을 기록 중이다. 토마스는 검증된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대했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영조유배서

고인돌유적지

운주시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영조유배서→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